

2011.10.24 미래정책연구실

## □ FAO, 세계 식량의 날 맞아 농식품시장 투명성 제고 권고

### 1. UN, Agence France-Presse(AFP통신) (2011.10.17) 주요 내용

- 지난 10.16일 세계식량의 날(World Food Day)을 맞이하여 로마에서 열린 2011년 FAO 세계식량안보위원회(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2011)는 농식품가격 불안정성 증가와 식량안보, 농지소유와 국제농업투자개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.
- FAO는 이번 보고서에서 농식품가격 상승과 불안정성 심화로 인해 빈곤계층과 소농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함.
  - 선진국은 무역정책이나 사회안전망 등을 통해 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있지만 아프리카와 같이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개도국의 경우에는 매우 취약하다고 언급함.
- 또한, 개도국의 경제 성장, 인구의 지속적 증가, 바이오연료 수요 등으로 인해, 농식품시장의 높은 가격과 불안정성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함.
  - 주요 곡물생산지의 곡물가격은 생산량 증가로 인해 지난달부터 급격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전년대비 높은 수준이며,
  - FAO의 9월 식품가격지수는 전월대비 2%p 하락한 225포인트로, 2월의 238포인트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, 작년 9월의 195포인트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음.
- 한편, FAO는 세계 식량의 날을 맞이하여 농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농식품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요청함.
  - UN FAO 자크 디우프(Jacques Diouf) 사무총장은 식품가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먹거리에 대한 기본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,
  - 오늘날 전세계 인구의 7분의 1에 달하는 10억 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으며, 세계 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,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위해 연간 800억 달러의 농업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함.

※ 자료 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